

“배고픈 자식 먹이는 마음으로” 양동상인 오월정신재현

5·18 항쟁 당시 ‘주먹밥’ 나눈 양동시장 상인 재현 동참 “어머니 마음으로”...‘나눔·연대’ 광주공동체 정신 상징

“내 자식 같은 학생들이 배고파 죽었다던데 면할 수가 있어야지라.”

5·18민주화운동 41주기를 이틀 앞둔 16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 행정복지센터.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5·18행사위)는 항쟁 당시 굶주린 시민군들을 위해 양동전통시장 노점상인들이 손수 만들어 건넸던 ‘주먹밥’을 재현하는 행사를 열었다.

항쟁 당시 양동시장 일대에서 노점을 꾸렸던 상인 8명(이영애·곽미순·오옥순·오판심·이정순·나재순·염길순·박금옥씨)은 41년 전처럼 간판 없는 정미소 터(현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모였다.

40여 년 세월이 흘렀지만 이들은 고무대야 한가득 담긴 밥을 양 손 가득 퍼낸 뒤 몇 차례 조물조물 쥐었다 펴며 주먹밥을 만들었다.

이영애 씨는 “뭘까 뭔지도 모르고 리어가 끌

고 장사만 했제. 어느 날 본계(시민군) 차량이와 ‘전두환 물러가라’를 외치더라”며 “차에 탄 학생들이 ‘배가 고프 죽겠소’ 아우성이었다. 자식 같은 마음에 ‘이럴 것이 아니다’하고 나섰다”고 회고했다.

이어 “장사한 사람들끼리 모여 ‘우리는 요리고 살아도 학생들은 편하게 살고 민주화된 세상에서 살아야 할 거 아니오’라고 뜻을 모았다. 조금씩 돈을 모아 쌀을 한 가마니로 마구 만들어 건넸던 것이 전부다. 정성스레 만들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오옥순 씨는 “생활이 다 어려웠던 시절이었지만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배고픈 이를 위해 밥을 해준 것이었지만, 엄혹한 신군부 치하에서 숨 죽이고 살아야만 했던 세월도 이야기했다.

김정애 씨는 “나도 자식이 넷이고 먹고 살기 힘들었제. 당시엔 ‘빨갱이다’, ‘공수들이 잡으러 온다’는 소문이 하도 많아서 두려웠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나중엔 광주시민들도 나서기 시작해 (전남)도청 앞에 밥이 쌓이기 시작했다고 들었다. 밥 해준 게 무슨 죄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당당하다”라고 했다.

이들을 비롯한 양동시장 상인들은 항쟁 당시 ‘아줌마, 물 한 바가지만 주오’, ‘배가 고프 죽겠소’, ‘요기거리만 쪼개 주소’라는 시민군 호소에 한 톨 두 톨을 모았다.

이후 모금한 돈으로 장만한 쌀 한 가마니를 정미소까지 들고 가 쌀을 찌냈다. 상인들은 ‘양동상회’ 앞 터로 찌낸 쌀을 가져가 빨간 고무통에 마구 부은 뒤 소금간만 하고 주먹밥을 만들었다.

정신 없이 마구 쥐어 만든 터라 주먹밥 모양은 투박했지만, 곧바로 시민군 차량에 실려 전남도청, 전남대 등 항쟁지 곳곳으로 옮겨졌다.

이들의 온정은 무자비한 계엄군 폭압과 맞서 싸우던 시민군들의 허기를 달래줬고, 항쟁



기간 중 나눔·연대의 공동체정신을 실천한 사례로 꼽힌다. 최근엔 이들의 항쟁 당시 활약상이 조명되면서 주먹밥은 오월광주 정신의 상징물로 자리 잡았다. 원순석 5·18행사위 위원장은 “주먹밥은

5·18항쟁 기간 동안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한 숭고한 민중정신 상징한다. 이러한 뜻을 기려 양동시장 상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발굴, 널리 알릴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순천시 덕연동 주민 주도 ‘반찬나눔’ 오는 11월까지 반찬나눔 추진 통한 코로나19 복지 사각지대 해소

순천시 덕연동 새마을부녀회는 최근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반찬나눔 공유부엌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도권 밖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찬나눔과 함께 찾아가 안부도 살피기 위해 추진됐다.

반찬나눔사업은 지난해 주민총회 주민투표를 통해 역량강화사업 2순위로 선정될 만큼 주민 공감대가 높은 사업이다.

따라서 최근 시장과의 정겨운 담소에서 건의되어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오는 11월까지 계절별·테마별로 총 10회 실시할 예정이다. 부녀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식

재료를 직접 구입하고 손질해 만든 제육볶음 등 다섯가지 반찬과 미역국을 반찬통에 나눠 담아 1인 가구, 독거노인 등 50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마중물냉장고를 통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했다.

최순 부녀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도권 밖 사각지대의 취약계층들이 많다”며 “반찬나눔과 함께 어르신들의 안부도 함께 살피는데 부녀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덕연동 새마을부녀회는 야간 부녀순찰대, 감장김치 나눔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간 온정을 더하기 위한 자원봉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동백로타리클럽, 실버주택복지관에 ‘효 꾸러미’ 전달

광양동백로타리클럽은 최근 광양실버주택복지관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효(孝)꾸러미 100개를 전달했다.

효 꾸러미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카네이션 가습꽃과 간식(떡, 과일)을 구입하고, 사라실 라네타 윤&필에서 천연비누를 기증받아 손수 포장했다.

꾸러미를 전달받은 실버주택 입주어르신은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어버이날에도 가족을 만나지 못해 마음이 적적했다”며,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아 너무 기쁘다”고 밝혔다.

정명옥 광양동백로타리클럽 회장은 “내 부모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꾸러미를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많이 외롭고 지친 어르신들께 어버이날을 맞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어르신들께 잘 전달했다”며, “어버이날을 맞아 뜻밖의 선물을 해 주신 광양동백로타리클럽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양동백로타리클럽은 1999년에 창단된 봉사단체로 12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백신 전용 냉장고 기탁 ▲설



명절맞이 광양읍 독거노인 6가구에 후원물품 전달 ▲저소득 중·고등학생을 위한 장학금 기탁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광양=심종섭 기자

곡성군, 지역사회의 모금으로 되찾은 희망보금자리

주택화재로 생활주거지 잃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장애인 가구 위해 주택신축

곡성군은 주택화재로 생활주거지를 잃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장애인 가구를 위해 주택신축을 완료하고 최근 입주식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주택이 전소되어 갈 곳을 잃은 장 모씨에게는 주택신축이 꼭 필요한 상황이

었다. 하지만 홀로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고 어려운 주머니 사정으로는 주택을 지을 수 없어 마을회관에서 지내야만 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발 벗고 나섰다. 곡성군에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택신축매칭그랜트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주택그랜트 매칭 사업비를 마련하였고 부족한 사업비는 대한전통건설협회 전남지회,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인성한방병원 등 지역사회의 후원으로 채울 수 있었다.

희망보금자리는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모은

모금을 가지고 12월에 준공을 시작하여 따뜻한 봄날인 4월에 완공할 수 있었다.

이날 입주식 행사에는 유근기 곡성군수, 정인근 곡성군의회 의장,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신현숙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유창남 곡성군전문건설협회회장, 전의상 인성한방병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됐다.

장 모씨는 “이렇게 쾌적한 화장실과 깨끗한 주방을 가지고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은 처음이라 너무 행복하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균형지원들과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호남 개시판

“생활소식을 실어드립니다”

안 내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진담상담소=(061-792-0362) 한국노총 순천노동상담소(061-721-7363) 한국노총 여수 상담소(062-685-5293)
-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 시스템 무상제공=13세 아동 및 정신 지체 장애인대상 긴급구조, 상담, 의료 심리치료 (062-232-1375)
- ▲생활상담 연구원 무료 방문, 전화, 온라인 상담=개인,주부,가족폭력,성,청소년 고민 등 (062-363-5599)
- ▲알코올상담 서비스 실시=인광알코올상담센터 무료 알코올 상담=술로인해 고통받는 사람 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 (222-5666)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 인권상담=월~금요일 오전9시~오후5시 (일반전화 국번없이 1331, 전화 062-1331)
- ▲월 연탄 100장 기증 회원, 연탄배달회원(연10회)=1년 내내 자동이체 후원자,전남 거주자, 광주 장애인 사랑봉사회 연탄 100장으로 봉사 광주본부 (522-8909)
-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장애인 체육 동호인 및 선수를 모집 광주광역시 장애인 체육회 상담전화(1577-7976)
- ▲빛고을 한사랑 회원모집=광주전남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출신 환영합니다. 문의 (062-374-5885, 010-2444-4500)
- ▲남녀 배구회원 수시모집=수시 (매주 월, 수,금,토요일) 광주 북구 일곡동 일동중학교 문의 (011-612-2112)
- ▲영상과 브레인 회원 모집=시나리오(8mm) 스티디 그룹, 읍저버, 드라마(구

- 성작가) 등 공동 창작활동 관심있는사람, 20~30대 응모가능, 40대는 경력자
- ▲빛고을 한사랑 회원 모집=영아원 및 지체장애시설 봉사에 뜻이 있는 20세 이상 남녀 (010-9974-9390, 문자환영)
- ▲평동지역아동센터(공부방) 직원, 자원봉사자 모집=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미술,만들기 등 예능에 소질있는분, 문의 062-363-5599
- ▲푸른복지문화센터회원=댄스 스포츠, 웰트, 팝 062-531-1769
-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소송 분쟁서비스 지원 (132,1577-8339)
- ▲광주·전남 MC품바 회원 모집=품바 배우실분(010-4624-8787)
- ▲신용사회만들기 시민연합 무료 채무상담=많은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 ▲중합민요사랑모임 회원=민요를 사랑하며 사회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 ▲신용사회만들기 무료 채무상담=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 ▲국가 인권 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 인권상담 (일반전화 국번없이 1331)
- ▲제주특별자치도민회원 모집=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출신 환영합니다 문의 (063-374-5885, 010-2444-4500)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 인권상담 (일반전화 국번없이 1331)
- ▲오치종합사회복지관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 회원 모집=초급반: 화,수요일 중급반: 월,수,금요일 수강료 무료 문의 (062-267-3700)
- ▲푸른복지문화센터회원=댄스 스포츠, 웰트, 팝 062-531-1769
-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소송 분쟁서비스 지원 (132,1577-8339)
- ▲광주·전남 MC품바 회원 모집=품바 배

- 우실분(010-4624-8787)
- ▲신용사회만들기 시민연합 무료 채무상담=많은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 ▲중합민요사랑모임 회원=민요를 사랑하며 사회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 ▲신용사회만들기 무료 채무상담=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 ▲국가인권 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 인권상담 (일반전화 국번없이 1331)
- ▲제주특별자치도민회원 모집=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출신 환영합니다 문의 (063-374-5885, 010-2444-4500)
- ▲국가인권 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 인권상담 (일반전화 국번없이 1331)
- ▲오치종합사회복지관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 회원모집=초급반: 화,수요일 중급반: 월,수,금요일 수강료 무료 문의 (062-267-3700)

- ▲국가인권 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 인권상담 (일반전화 국번없이 1331)
- ▲오치종합사회복지관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 회원모집=초급반: 화,수요일 중급반: 월,수,금요일 수강료 무료 문의 (062-267-3700)

- ▲국가인권 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 인권상담 (일반전화 국번없이 1331)
- ▲오치종합사회복지관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 회원모집=초급반: 화,수요일 중급반: 월,수,금요일 수강료 무료 문의 (062-267-3700)